禪문화 정수 살아 숨 쉴 교육관 '첫 삽'

범어사, 2월 5일 선문화교육관 건립 착공식 봉행





2018년 12월 완공 예정인 범어사 선문화교육원 조감도(사진 왼쪽). 오른쪽은 2월 5일 범어사 스님과 내빈들이 착공식서 시삽하는 모습.

전통사찰의 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선(禪) 문화의 정수가 살아 숨 쉴 공간이 지어진다.

금정총림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2월 5일 부산 금정구 청룡동 480번지 일원(상마마을 사자암 입구)인 선문화교육관 공사 부지에서 선문화교육관 착공식을 봉행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는 불심도시인 부산을 대표하는 선찰대본산이자 화엄종찰이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30년 전부터 선문화교육관 불사의 필요성을 느껴 숙원으로 간직해왔다.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기공식을 진행해 무한히 기쁘다"며 "내년에 완공되면 범어사를 찾는 부산불자들과 대중들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선문화교육관과 더불어 찬란한 불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박물관도 함께 지어진다면 더 큰 문화공간으로 회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향후 바람도 전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선문화교육관은

선문화불교관·선문화체험관 2동

자연과 조화이루는 전통한옥형

2018년 12월 완공 목표로 진행

출·재가 500여명, 원만 불사 발원

"불심 키우는 선문화 공간되길"

범어사를 넘어 부산 시민과 세계인에게 전통문화를 전달하고 부처님의 뜻을 체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교육관은 부산불교의 숙원이자 전국 불자들의 숙원일 것"이라고 축하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관을 통해 맑고 밝은 선 문화가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 또한 학생들의 심성에도 도움 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전통문화의 계승지로서 일반인들에게 선의 세계를 선보이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도 평안 주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문화교육관은 선문화불교관과 선문화체험관 총 2동으로 건립되며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2981.27㎡ 크기다. 총 높이가 13.55m인 저층구조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 한옥형이다. 선문화교육관은 2014년 12월 전통문화사업체험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됐으며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착공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 법륜사 회주 선래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흥선 스님 및 서병수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허영범 부산지방경찰청장, 원정희 금정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문화재 감리·기능자 경력관리 기준 마련

문화재청, 법률 시행령 개정

문화재 수리 복원에 있어서 책임 감리와 기능인들의 경력관리제도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월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월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책임감리 대상은 지정문화재 수리로써 수리 예정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지정문화재 주변정비로써 수리 예정금액이 50억 원인 경우이다. 책임 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은 수리 기간동안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 등 신고서에 문화재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학캠퍼스 연계, 생명나눔 의식 확산"

생명나눔실천본부, 2월 6일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홍보위원회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교와 연계해 적극적인 캠퍼스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사진, 이하 생명나눔)는 2월 6일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의실서 신년사업 계획 공유를 위한 '2017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장기기증·조혈모세포 희망등록과 생명나눔 인식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올해 처음 홍보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 단계부터 전문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이에 홍보위원회는 늦어도 올해 3월 말 출범 예정이며, 법조계·스포츠계·기업가·IT전문가·후원자 등 7~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최상균 생명나눔 사무총장은 "지난해 5,000명을 목표로 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인원이 3,600명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기존 인력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관리에 집중하는 데 그쳐 홍보가 미약했다는 자체 분석이 있었다"며 "이에 홍보 전문가들을 구성하고 행사·캠페인에 앞서 홍보 전략을 세워 행사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활동 외에 전국 대학교 동아리와 연계해 캠퍼스 내 캠페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눈에 띈다.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인원 총 3,530명 중 8개 대학교 희망등록 활성화 캠페인 현장 등서 동참한 인원이 1,719명으로 다수를 차지할 만큼 호응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대학생들은 장기기증이나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만 일단 제대로 정보를 얻고 나면 기증 동참률이 매우 높다"며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전남까지 올해 20개 대학과 MOU를 맺고 봉사동아리 위주로 활발한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매체에 익숙한 젊은층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온라인·SNS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이승희 기자

불교복지 백년대계 수립 'START'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백년 발전위원회' 출범

불교사회복지 미래를 계획할 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불교사회복지 미래를 계획하는 '복지백년 발전위원회 출범 및 위촉식'을 진행하고 향후 2년간 활동 시작을 알렸다. 지난 1월 24일 조계종복지재단이 신년 계획으로 발표한 복지백년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를 출범한 것.

발전위원회는 향후 △미래지향적 불교복지 발전 전략 수립 △발전 동력 확보 위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 △불교복지중앙센터 건립 방안 논의 △표준화된 복지모델 개발 및 운영 시스템 구축 △관련 학술·연구·조사 및 자문 등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을 비롯, 추천을 통해 △성행 스님(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호산 스님(중앙종회 사무처장) △화평 스님(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시설장협의회장) △성화 스님(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법원 스님(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일운 스님(황송노인종합복지관장) △희유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장) △정관 스님(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이용권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공상길 신길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운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 △홍송이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영식 前 해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최종환 조계종복지재단 사무국장 등 16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 7번째)과 발전위원회 위원들.

총 16명, 복지발전전략 연구

표준 복지모델 개발·운영안 등

위원장 함결 스님은 "불교사회복지가 포교 활성화를 이끄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겠다"며 "발전위원들과 함께 현장과 학계·불교계의 긴밀한 소통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복지인프라를 발전시켜 불교복지취지에 맞는 좋은 정책들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복지인들의 열정이 전파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만해 정신과 사상 문학으로 기린다

3월 1일, 제38회 만해백일장

불교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는 백일장 대회가 열린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는 3월 1일 오전 10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38회 전국만해백일장 대회를 개최한다.

만해백일장은 국내 최다 참가자를 자랑하는 단일 백일장이다. 만세운동 98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국 만해백일장에는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월 6~12일까지 대불청 홈페이지(www.kyba.org) 사전접수가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현장접수도 이어진다. 현장접수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분야는 시와 시조, 산문으로 만해대상에는 상금 100만원과 대통령상이, 만해상에는 50만원 상금과 국회의장상이 수여된다. 각 부문 장원과 우수상 등도 시상된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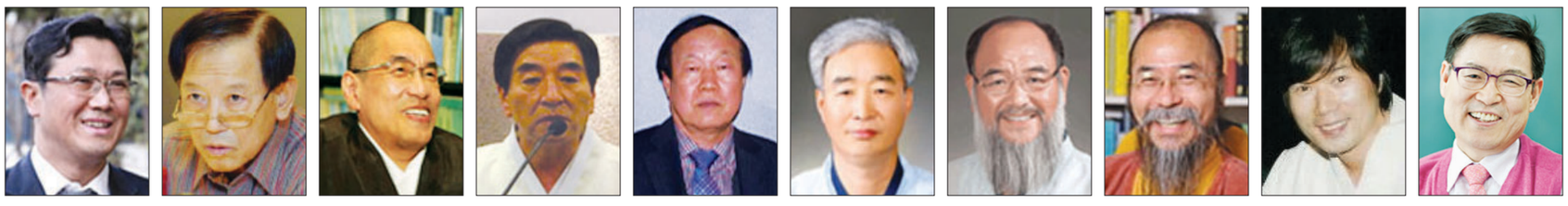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2월23일~6월 22일, 매주 목(木)18:40~21:30/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3월 2일(목) 17:30~ 공개강좌 2월 23일 (목) 18:30 등록금 240만원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심화과정 FCA현대사주학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장소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www.gfca.kr ※문의 : 02-3443-4984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